

생활물가 6년새 24% 올랐다

호남통계청 물가 변화 조사...연평균 2.1% 상승 배추·돼지고기·마늘 등 50%이상 상승 품목 25개

광주·전남 지역의 2011년 생활물가지수가 6년 전과 비교해 20% 이상 올랐다고 나타났다.

1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05년 이후 호남권 생활물가 변화'에 따르면 광주의 2011년 생활물가지수는 104.6으로 2005년보다 23.5% 상승, 연평균 2.1%씩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4.1로 20.8% 상승해 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2.7%포인트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를 반영하는 상품과 서비스 481개 품목 가운데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매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다.

2005년과 비교해 50% 이상 상승한 생활물가지수 품목은 농축수산물 9개, 공업제품 12개, 서비스 4개 등 모두 25개에 달했다.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참외(105.0%), 파(79.1%), 마늘(77.9%), 고춧가루(67.4%), 오징어(66.4%), 감자(59.5%), 미역(56.7%), 배추(54.

4%), 돼지고기(52.9%)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공업제품이 LPG(취사용:84.1%), 간장(70.5%), 고추장(68.6%), 국수(66.0%), 경유(61.9%), 된장(59.8%), 소금(59.7%), 설탕(59.3%), 생선통조림(58.4%), 남자내의(57.3%), 도시가스(54.5%), 화장지(50.2%) 등이고 서비스 품목은 목욕료(60.5%), 쓰레기봉투료(56.5%), 자장면(51.8%), 전철료(50.2%) 등이다.

2005년보다 하락한 생활물가지수 품목은 7개로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굴(-14.6%), 버섯(-3.2%), 쌀(-1.3%), 쇠고기(수입: -0.7%) 등 4개, 서비스 품목이 학교급식비(-41.2%), 납입금(고등학교: -8.2%), 이동전화료(-7.8%) 등 3개로 나타났다.

연도별 생활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폭을 보면 2008년이 가장 많이 올랐고(5.5%), 2009년이 가장 낮게 오른 것으로(1.5%)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2011년 생활물가지수는 105.1로 2005년보다 24.2% 상승, 연평균 2.2%씩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4.5로 21.7% 상승해 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2.5%포인트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보다 50% 이상 오른 생활물가지수 품목은 농축수산물 15개, 공업제품 14개, 서비스 1개 등 모두 30개에 달했다. 또 2005년보다 하락한 생활물가지수 품목은 농축수산물 2개, 서비스 1개 등 3개였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가장 많이 올랐고(5.6%), 2009년이 가장 낮게 오른 것으로(2.0%)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친환경 김장김치 예약 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친환경 김장김치 예약판매를 받는다. 모든 원료는 유기농 또는 무농약 재료를 사용하며 절임배추 10kg 2만5000원, 김장김치 10kg 7만5000원에 예약을 받는다. 문의 062-221-1011~4.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살림살이 갈수록 '팍팍'

건전성 지수 3년연속 하락...연체율 악화

신용평가가사 매긴 대출 보유 가계의 건전성이 '위험단계'로 주저앉았다. 제때 빚을 갚지 못한 '불량 대출자'도 늘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19일 우리나라 대출 보유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시장 건전성 동행지수'가 3년 연속으로 떨어져 올해 1~6월 평균 99.8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KCB가 가계신용시장의 성장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려고 2009년에 만들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인

구원(KDD) 등에서 발표하는 기존의 거시지표에 KCB의 개인신용시장지표를 결합해 산출한다. 개인대출 연체율에 동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수는 2010년 101.12, 2011년 100.49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1~6월 평균 99.84로 기준선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대내외 경제 악화로 가계의 건전성이 하락국면에 접어들며 결국 기준선인 과거 5년 평균치보다 못한 수준으로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지신용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었다.

NICE신용평가정보 통계로는 저신용등급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이 모두 603만9071명으로 전체 4194만 2831명의 14.4%다. 지난해 말 7~10등급 비중은 14.5%였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집계에서도 7~10등급자가 전체 4077만 8888명의 16.0%(652만4670명)로 지난해 말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개인 신용도가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모든 등급에서 불량률이 증가한 탓이다.

불량률이란 최근 1년간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연합회와 통보되거나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 비율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노사 화합의 등반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창립 44주년을 맞아 최근 무등산을 비롯한 광주 전남 44개 봉우리에서 공생경영 실천을 위한 다짐대회와 함께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주식시장 맴도는 100조원

주가 박스권...관망세 지속

주식시장 주변에 10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

주가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쉽게 뛰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주가 상승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주식 거래대금도 좀처럼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투자자여탁금과 파생상품거래 예수금, 위탁매매미수금, 환매조건부채권(RP) 잔고, 신용융자 및 신용대주 잔고 등 증시

주변자금이 93조1300억원에 달했다. RP 잔고가 63조3000억원으로 증시 주변자금의 68.0%를 차지했다. 단기 운용상품인 RP 잔고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을 일시적으로 넣어둔 것으로 연체된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 증시 주변자금으로 간주한다.

전체 증시주변 자금은 작년 7월 말 87조원 수준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던 8월 91조원으로 증가하더니 이후 90조원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10개월째 90조원을 웃돌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5일 현재 96조6316억원까지 커져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증시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자 주식 거래대금도 감소세이다.

연합뉴스

'연봉 킹' 동부화재

대졸신입 4700만원...삼성 추월

동부화재가 대졸 신입사원 연봉에서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연봉 액수만 4700여만원에 달해 보험업계의 새로운 '신의 직장'으로 떠올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의 대졸 신입 연봉은 동부화재가 세전 기준 46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4580만원), 삼성화재·LIG 손해보험(4300만원)의 순이었다.

동부화재 신입 연봉이 삼성화재보다 300만원 이상 많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삼성'하면 모든 업계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다는 상식을 뒤집는 결과

다. 전체 금융권 평균 신입 연봉인 3000만원 중반 대비 1000만원 이상 높다.

동부화재의 신입 연봉에는 성과급 등이 빠져 있다. 지난 4월 말 연봉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입 연봉이 6000만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의 평균 40%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받은 삼성화재와 연봉의 30%를 성과급으로 받은 현대해상도 6000만원 선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부화재는 올해 대졸 신입을 160명, 삼성화재는 150명을 뽑았다.

생명보험업계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신입 연봉은 손해보험계 빅4에 모두 못미쳤다.

연합뉴스

카드 불법모집 신고뎀 200만원 포상

금감원 내달 1일부터 '카파라치' 운영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0만~2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

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크게 5가지다.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한 카파라치는 건당 10만원씩, 미등록 모집 행위 신고와 포상금은 건당 20만원이다.

카파라치 1명이 이들 4가지 불법 행위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모집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종합카드 모집 조직(일명 '종카')의 신고 포상금은 200만원으로 높다.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카파라치 신고는 사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해야 한다. 신고서는 서면·우편·인터넷으로 내면 된다.

연합뉴스

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NAVER 정남진투어 검색하세요!

Event 정남진 투어 공짜 이벤트!!!
선착순 1일 5명 공짜!

2012년 11월 19일 ~ 12월 20일까지
주중향차 *금토장흥/일성산출항 향차는 제외

선착순 3,00명 (사전예매자에 한함) 하루에 5명씩 적용-!!
일반실 편도 ₩9,000 적용 (항만세 별도)

오렌지호 장흥↔제주

정남진투어 이용시 20% 향시 할인~!!
선박최고 40%/노력향까지 버스임대 50% 할인~!!!

차량무료 선적 3명 예약시 1600cc 미만
차량 무료 이벤트 중복은 불가

제주 한라산 산행 **99,000**

제주 1박 2일투어 **119,000**

제주 2박3일 투어 **139,000**